

“염불보다 잣밥”... 유럽서 ‘선 넘는’ 美대사들

벨기에·프랑스·폴란드 등 곳곳서 거친 언사로 파문
“절제된 외교 활동보다는 트럼프 관심 끄는 데 집중”
사적 인연·정치자금 기부자 등 외교 문외한 등용 지적

재외 공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사는 자국 국가원수를 대리해 주재국에 자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재국과 자국의 우의 증진을 위한 외교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는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거쳐 ‘외교관의 꽃’이라 불리는 대사직에 도달한 이들은 세련되고, 절제된 매너를 갖추게끔 긴 세월 단련된 터라 튀는 행보로 물의를 빚거나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유럽 곳곳에서는 노벨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가 거친 언행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특히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덴마크 등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여러 국가에서 근래 미국 대사가 내정 간섭으로 간주되는 발언이나 상대국 인사들에 대한 무례한 언사로 잇따라 주재국과 충돌했다.

벨기에에서는 빌 화이트 미국 대사가 무자각 할례 시술에 대한 벨기에 당국의 수사를 ‘반유대주의’라고 비난하며 유대교 할례 시술사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벨기에 정부에 초치돼 항의받

았다. 벨기에 항구 도시 안트베르펜에서는 의료면허 없이 할례를 시술한 혐의로 남성 3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종교 전통이라 두면허 할례 시술은 불법이라는 게 벨기에 당국의 판단이다.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성기 일부를 절제하는 할례는 유대교의 전통이다.

화이트 대사는 그러나 외무부에 초치된 이후에도 자신과 회동 직후 악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프랑크 반텐브라우커 벨기에 보건장관을 “답시 무례하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는가 하면, 벨기에 연정의 일원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코너 루소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게 빗대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미국 입국 금지령을 위협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반텐브라우커 벨기에 보건장관은 화이트 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 현지 라디오에 출연해 “그는 벌써 여러 번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벨기에가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판사들이 독립적이고, 장관은 (할례 시술)판결에 개입할 수 없



벨기에 빌 화이트 대사



프랑스 찰스 쿠슈너 대사



그리스 킴벌리 길포일 대사

다”며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에 사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우파 청년이 급진 좌파 활동가들의 집단 폭행에 숨진 사건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논평이 양국 외교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 대사가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불응해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다.

쿠슈너 대사는 워싱턴 조야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럼프 대통령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아버지이다. 그는 작년에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를 지적하는 서한을 보내 갈등이

빛졌을 때도 프랑스 외무부의 조치를 거부하고 부대사를 보내 프랑스를 자극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그의 잇단 조치 불응에 “대사로서 프랑스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영예를 누리는 사람은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관례를 존중하고 외무부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가 우리나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쿠슈너 대사의 프랑스 정부 고위 인사 접근권을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프랑스 측의 강경 대처 움직임을 감지한 쿠슈너 대사는 지난 24일 바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프랑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

겠다고 약속하며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폴란드에서는 이달 초 톰 로즈 미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트럼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브워지미에치 차자스티 폴란드 하원 의장과 외교적 접촉을 끊겠다고 선언, 눈총을 받았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달 중순 빌리 룬 주 아이슬란드 미국 대사 지명자가 꺼낸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농담에 “모욕적”이라며 들끓었다.

켄 하워리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는 그린란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미국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당시 전사한 동료 44명을 기리기 위해 미국 대사관 앞에 설치한 덴마크 국기 44개를 일방적으로 철거해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기업을 출신의 하워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이력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사들이 유럽 곳곳에서 외교 결례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단련된 직업 외교관을 제쳐놓고 사적 인연이 있거나, 정치 자금을 기부한 외교 문외한으로 주요국 대사직을 채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주그리스 대사에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전 약혼녀인 킴벌리 길포일, 스페인 대사에는 새 백악관 연회장에 기부한 벤저민 레온 주니어를 앉힌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주재국이나 국무부와 소통하며 신중하고, 절제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 유럽 매체들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관세와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유럽을 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상으로 무장한 채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요란한 언행을 일삼는 미국 대사들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당혹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연합뉴스**

中, 반부패 칼바람... 군장성 9명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양회 개막 앞두고 기강 잡기
전인대 상무위, 19명 해임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 장성 9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이는 4일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나온 조치로,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회(연합참모부 참모장) 수장에 이은 것이다.

지난달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트(SCMP)와 명보,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1차 회의에서 모두 19명을 전인대 대표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대장급) 5명과 중장 1명, 소장 3명 등 장성 9명이 포함됐다.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웨이, 전 육군 사령원(사령관) 리차오밍, 전 해군사령원 선전총, 전 해군 정치위원 진성샹, 전 공군 정치위원 위중푸 등 상장 5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홍콩 성도일보에는 이들 중 선전총, 진성

샹, 위중푸는 퇴역 장군이라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정치위원 왕둥하이 중장, 중앙군사위 벤루이핑·육군 덩라이푸·로켓군 양광 소장의 자격 박탈도 이뤄졌다.

리웨이·리차오밍 상장은 2022년 제20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이었지만 작년 10월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SCMP는 장성 9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정

당국의 조사 또는 신분 변경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로써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의 전인대 대표 수는 총 243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제14기 전인대 대표 2977명이 확정된 2023년 2월 인민해방군·무장경찰 소속 전인대 대표는 모두 281명이었는데 이 중 38명이 3년 사이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 신문은 “이번 조치가 장유샤·류전리 등에 대한 수사 발표 등에 이은 것으로 인민해방군 내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및 기강 확립 노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장유샤·류전리 숙청 이후 시진핑 권위 체제를 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명보,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9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전인대 앞둔 중국 베이징 텐안먼.

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인민해방군 장성 9명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장유샤·류전리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공개된 회의 결과문에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전인대는 중국 내 31개 상·자치구와 인민해방군(무장경찰 포함),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35개 선거 단위에서 간접 선거로 3000명 안팎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가.

한영민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